

# 디지털을 제외한 중국의 카메라 시장 동향(하)

## 중국의 광학기기 시장 동향

편집자 주

현재 중국에는 약 40여개 이상의 카메라 제조 회사들과 약 1000여개에 육박하는 부속 장비 및 부품 제조 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국영 기업(SOE), 민간 출자 기업, 합자 회사(JV) 및 외국인 전액 출자 기업(WFO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의 주요 제품으로는 전통적인 SLR 카메라, 소형 카메라, 즉석 카메라 및 디지털 카메라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억대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호의 디지털카메라 시장동향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디지털을 제외한 카메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소형 카메라 및 (일안 반사형) SLR 카메라

현재 중국에는 올림푸스, 캐논 및 니콘 등과 같이 소형 및 (일안 반사형) SLR 카메라를 생산하는 외국 업체들이 고급형 카메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 피닉스 및 시걸 등과 같은 중국 현지 기업들은 저가형 카메라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적정 가격대의 비교적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001년 기준 중국내 카메라 판매 대수는 1100만대를 상회하였으며, 수출 금액은 USD 14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2000년 카메라 부품 수입 실적은 중량 기준 13만톤에, 수입 금액 기준 USD 6억540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9000만대의 카메라가 USD 14억500만 달러의 가격 조건으로 수출되었다. 중국은 이제 생산 용량 및 생산 규모 측면에 있어 명실 상부한 세계 최대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미 자신의 투자 전략을 WFOE 업체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함으로써, 합작 기업에 대한 (기술, 생산, 수출 등의) 출자 지분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추세는 중소 규모의 현지 제조 회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으로써, 신규 개발 및 기술 투자를 축소 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IT 업체들이 영상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디지털 영상(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신 사업 기회를 탐색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카메라 생산 업체(피닉스 및 시걸)들은 이러한 도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학계, 협회 및 IT 기업들과 적극적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기술을 개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회용 카메라 부문

중국 본토에는 현재 100여개 이상의 회사들이 1회용 고급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100명~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회용 카메라 제조회사의 대부분은 주로 수출용 OEM 제품을 주요 생산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생산업체를 살펴보면, Dongguan Skyfine Co., Ltd., Shenzhen Duolilong Industrial Co., Ltd., Shenzhen Ke Wei Chuang Industrial Co., Ltd., China National Arts & Crafts (Group) Corp 및 Shenzhen Daewin Industrial Co. 등이 있다.

이 OEM 제조회사 이외의 주요 참가업체 중에는 코닥, 후지필름 및 럭키(Lucky)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체 전문 매장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판매 대리점을 통해 중국내 영업 활동 및 독자적 생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수준은 거의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렌즈는 일본 또는 유럽 제품

표준과 거의 상응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와 같은 사실은 중국의 광학 산업이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첨단화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였음을 단적으로 예시해 준다. 중국에서 조달되는 렌즈는 이제 더 이상 이류 제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필름 유형을 지원하는 일회용 카메라 판매 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준 사양으로 24장짜리 필름이 시판되고 있지만, 일부 공급 회사들은 6, 12 및 27장짜리 1회용 카메라를 칼라 및 흑백 사양으로 생산하고 있기도 한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성장과 소형 카메라에 대한 대중적 인기 확산 추세는 중국내 일회용 카메라 시장의 중장기적 발전 및 확충 과정에 있어 상당한 경쟁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즉석 카메라 부문

플라로이드 사가 얼마전 미국내에서 상당 규모의 조직 감축 계획을 발표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중국내에서의 활동기반을 축소하겠다는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동 업체의 현지 운용 회사인 '플라로이드 인터스트리얼 차이나'는 본사에서 중국을 매우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의 영업 활동을 지속 수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공식 조사되고 있다. 특히 중국내 플라로이드 대행사인 <Beijing Wenhua Camera Company>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플라로이드 사가 중국 즉석 카메라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중국내 즉석 영상 제품의 판매 영역은 주로 의료, 기업 및 소비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라로이드 사는 이 전체 분야에 대해 중점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플라로이드 사는 거리의 사진사들이나 여권, 비자, 운전면허증 및 신분 증명 카드용 즉석 사진을 판매하는 기타 판매상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잠재적 기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사진 영상 시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선두 주자로서 이들 매장을 적극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각 제조 회사들은 공급 경로상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이한 형식의 유통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로이드는

공인 대리점을 통해 즉석 카메라를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반면, 후지필름은 중국내 독자적인 판매 조직을 구축 운영하는 동시에, 중국 전역에 3000개 이상의 전문 매장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일회용카메라의 제품 표준에 대해서 폴라로이드는 1996년 중국 시장을 특별히 겨냥해 설계한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폴라로이드 시스템2000 카메라(소위 진 카이(jin Cai) 또는 "眞金" 카메라)이며, 또 다른 사례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도 매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 설계된 폴라로이드 사의 최신형 '지오 필름(geo film)' 이라 할 수 있다. 이 폴라로이드 600 플러스 특수형 즉석 필름에는 '고온 최적화'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즉석 카메라 시장은 소형 카메라의 대중적 인기 확산 및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추세로 인해 매우 중대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여 있지만, 후지필름은 현재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신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 소개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즉석 사진 제품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카드 크기의 신형 즉석 사진은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즉석에서 매우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 카메라 렌즈 및 필터 부문

이 분야의 대표적 참가업체중 하나는 독일 브랜드의

Rodenstock 사로 실사 렌즈, 다초점 렌즈, 감광, 연속 및 단사(single vision) 렌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최대 유통업체중 하나는 Jebesen & Co. 사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본토 전역에 몇몇 사무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시걸(Seagull Shanghai General Camera Factory)은 중국 최대의 현지 생산업체로 모든 종류의 줌 렌즈와 광각 렌즈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제조회사의 제품 표준을 살펴보면, 오늘날 중국에서는 ISO 9002 인증 기준의 중요성이 보다 증가되고 있는데, 주요 참가 업체들은 물론, 중국 현지의 소규모 제조 회사들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SO 인증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중국 공장 내에서 연간 30만개의 현미경 렌즈와 접안 렌즈를 생산하고 있는 Nanjing Jiapin Optical Industrial 사인데, 1999년 12월 장쑤성(강소성) 품질 인증 센터는 이들에게 ISO9002 인증서를 공식 발급해 주었다.

## '광학세계' 정기구독 안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광학세계' 지를 정기 구독하고자 하는 분은 1년 간 책자 우송료 1만2천원을 지불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기구독 기간중 주소 및 전화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본 협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4-01-0156-856

▶예 금 주 : 한국광학기기협회

- 연락처 : 「광학세계」 편집부
- 주 소 : (137-84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2-5  
백산커뮤니티빌딩 4층 한국광학기기협회
- 전 화 : (02)581-2321 • 팩스 : (02)588-7869 • 이메일 : pjy@koia.or.kr